

논증적 상호 교섭 전략으로서 논증 도식 유형에 대한 연구

—국어 교과서의 ‘논증’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서영진*

<차 례>

- I. 서론
- II. 논증적 상호 교섭과 논증 도식
- III. 논증 도식 유형 분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IV. 논증적 상호 교섭 전략으로서 논증 도식 유형의 재구성
- V. 결론

I. 서론

본 연구는 논증 도식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개정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논증’ 교육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나아가 논증 도식을 구분하는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논증적 상호 교섭 전략으로서 학습 가치가 높은 논증 도식을 선정하여, 논증 도식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논증을 통한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은 첨예한 이해관계의 복잡체인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할 핵심 덕목으로, 의사소통 능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학 박사과정 수료

력을 다루는 국어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논증 담화 및 논증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어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말을 잘 하고 글을 잘 쓸 수 있는 능력만 신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절히 추론하고 판단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총체적인 사유 능력의 신장까지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도 논증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 역사상 최초로 ‘논증’에 대한 교육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¹⁾

국어 교육에서 논증 교육은 논증의 글 읽기 및 쓰기, 토론 담화 수행 등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왔는데, 논증 장르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근거와 주장만 나열하면 논증이 된 것으로 생각하거나,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반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학습자가 많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상

- 1)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화 및 텍스트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제시할 때, 그것이 논증 장르와 관련된 내용이라도 ‘논증’이라는 용어를 직접 노출하지 않고 범박하게 제시해 왔다. 하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논증적 소통 능력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이를 명시화하였다.

【8-읽-(2)】 주장하는 글을 읽고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논증의 요소와 논증 방식 이해하기
-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여 주장의 타당성 평가하기
-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글쓴이의 주장 평가하기

【9-쓰-(2)】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근거를 들어 논증하는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논증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
-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를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 제시하기
- 연역, 귀납, 유추와 같은 논리적 증명 방법 활용하여 쓰기
- 논증하는 글의 문화적 관습 고려하기

대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반응하라'고 가르치고는 있지만, 이러한 추상적 수준의 가르침으로는 논증 장르 운용 능력을 제고하기 어렵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논증 양식에 기반한 텍스트와 담화의 소통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논증적 상호 교섭을 원활하고 생산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핵심적 기재를 찾고 그것에 근거한 구체적 전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논증적 상호 교섭을 추동하는 원리 및 기재를 찾기 위해서는 논증 도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논증 도식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생산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효과적인 상호 교섭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논증 도식은 논증 텍스트를 쓸 때는 주장과 근거를 조직하는 여러 가지 정형을 제공해 주고, 논증 텍스트를 읽을 때는 주장과 근거의 논리적 관계에 따라 어떠한 측면에 비판적 의문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는 표지 역할을 한다. 이는 토론 담화의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논증 도식에 대한 분석은 논증의 타당성과 합리성, 설득성과 오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에도 논증 도식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은 논증 도식 본연의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논증 활동에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수사학이나 화용론에서 전개되고 있는 논증 도식에 대한 논의들에서는 연구자마다 논증 도식을 구분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체계가 복잡하거나 모호하여 논증의 습득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논증 도식을 선정하고 그것을 구분하는 체계를 정비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정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²⁾의 '논증' 교육 내용과 논증 도식 분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2) '논증'을 명시적으로 내세운 성취 기준은 9학년에도 있다. 그러나 9학년 교육과정 내용을 구체화한 중학교 3학년 교과서는 아직 발행 전이기에, 이미 발행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내용만을 살핀다.

자 한다. 나아가 논증 도식에 대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논의들의 한계를 살피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논증 도식에 대한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논증적 상호 교섭 전략으로서 학습 가치가 높은 논증 도식을 선정해 보고자 한다.

II. 논증적 상호 교섭과 논증 도식

1. 논증과 논증적 상호 교섭

1) 교과서의 논증 개념

일반적으로 논증이라 하면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들의 집합을 떠올린다. 여기서 전제란 대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이유나 자료인데, 논증이기 위해서는 지지 관계, 귀결 관계, 함의 관계를 맺고 있는 전제와 결론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타인을 향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이성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포함된 주장하는 언어 행위의 총체를 논증이라고 하기도 한다. 상대를 설득하겠다는 논증자의 의도나 목적, 타인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사회성, 이성의 규준에 따르겠다는 결심을 바탕으로 논증을 수행하는 과정과 행위 등을 강조하는 것이다(박준호, 2006 : 275).

전자는 논리학에서 추구하는 논증의 개념이며, 후자는 수사학이나 의사소통이론 등에서 추구하는 논증의 개념이다. 형식 논리학의 영향력이 강했던 때는 논증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 맥락을 배제한 채, 전제와 결론의 형식적 구조나 특성 등의 형식적 타당성만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일어나는 논증적 사고와 활동에 대한 설명을 가로막았으며, 논증을 의사소통 과정과 분리시키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상황 맥락을 고려한 논증 활동과 합리적 설득

으로서 논증 활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Perelman & Olbrechts-Tyteca(1958)에 의해 수사학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이 이루어지면서 논증 활동이 발생하는 맥락과 논증 활동에 참여하는 청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Govier(1988, 1987), Walton(1989, 1996, 2008, 2010), Eemeren & Grootendorst(1984, 1992, 1996), Breton(1996), Keenpointer(1992) 등이 논증의 실용적, 대화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논증의 다양한 특성과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논증의 개념은 전자와 후자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검정 심의를 통과하여 발행된 15종의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 중, ‘주장하는 글을 읽고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한다.’라는 성취기준을 구체화하여 단원을 설계하면서 ‘논증’이라는 용어를 직접 노출하여 정의한 교과서는 11종인데,³⁾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논증이란 어떤 ‘전제’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용남 외, (주)지학사(2010 : 180)

(2) 논증이란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윤희원 외, 금성출판사(2010 : 138)

(1)은 전제와 결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사례로, 논리학적 논증 개념이다. (2)는 주장하는 행위를 강조한 대표적인 사례로 수사학이

3) 11종 교과서는 권영민 외(새롭고교육), 김상욱 외(창비), 남미영 외((주)교학사), 노미숙 외(천재교육), 박경신 외(대교), 오세영 외(해냄에듀), 윤여탁 외((주)미래엔컬처그룹), 윤희원 외((주)금성출판사), 이승원 외(좋은책 신사고), 이용남 외((주)지학사), 조동길 외(비상교육)이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관련 내용을 ‘중학교 국어 2-2’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다만 윤여탁 외((주)미래엔컬처그룹)과 이용남 외((주)지학사)는 ‘2-1’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11종 중 김상욱 외(창비), 윤희원 외((주)금성출판사), 이승원 외(좋은책 신사고), 이용남 외((주)지학사)는 논증의 개념·요소·방식 등에 대한 지식을 별도의 소단원 학습 제재글로 제시하였고, 그 외 교과서들은 한편의 주장하는 글을 소단원 제재글로 제시한 후 논증의 요소나 논증의 방식에 따라 분석하는 학습 활동에서 논증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나 대화·화용론적 논증 개념이다. 교과서의 논증의 개념들은 이 두 가지 경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11종 교과서들의 논증 개념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1〉 논증에 대한 정의

| (1) 전제를 바탕으로 결론 도출 | (2) 주장하는 행위 |
|----------------------------------------------------------------------|-----------------------------------------------------------------------------------------------------------------------------|
| 박경신 외(대교), 노미숙 외(천재교육), 이 용남 외((주)지학사), 조동길 외(비상교 육) * 총 4종 | 권영민 외(새롬교육), 김상옥 외(창비), 남미영 외 ((주)교학사), 오세영 외(해냄에듀), 윤여탁 외 ((주)미래엔컬처그룹), 윤희원 외((주)금성출판 사), 이승원 외(좋은책 신사고) *총 7종 |

최근 논증 이론의 연구 범위가 주장하는 언어 행위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흐름에 따라, 국어 교과서의 논증 개념도 (2)의 개념을 많이 따르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2)로 분류되는 교과서라 하더라도, 해당 개념에 대한 부연 설명과 학습 활동으로 구체화 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장하는 언어 행위보다는 근거와 주장의 논리적 증명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논증 개념은 전통적인 논리학에서 추구하는 논증의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인데, 이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일어나는 논증적 사고와 논증적 소통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을 가로막고 논증을 의사소통 과정과 분리시키는 한계를 갖는다.⁴⁾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논증적 소통 능력은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합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것에서부터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논증의 타당성과 오류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대안적 논증을 생산해 하며 논증 행위를 실천하는 총체적인 능력이다. 이에 비하면 국어 교과서의 정의는 그 의미역이 좁게 설정되어 있어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논증적 소통 능력을 포괄하기 어렵다. 국어 교육에서 논증 교육은 단순히 전제와 결론의 형식적 타당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전개되는 논증적

4) 논증의 의사소통 과정과 맥락을 고려하는 교과서 내용도 있다. 윤희원 외((주)금성출판)은 ‘논증에서 주장을 할 때는 당대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논증의 의사소통 행위성을 고려한 교과서는 1종에 불과하다.

소통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교과서 논증 개념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해당 교육 내용은 고정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읽기 및 쓰기 활동을 전제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역동성 보다는 텍스트의 고정된 논리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논증에 대해 정의하면서 논증 텍스트만을 고려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표현 방식, 표현 매체 면에서 차이가 있을 지라도, 논증 장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는 공통의 운용 방식을 따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읽기·쓰기 교육 활동 역시 필자와 독자 간의 의사소통 행위라는 대전제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논증 텍스트 운용에서도 논증의 소통 과정과 맥락들을 두루 고려하고, 의사소통 행위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중학생의 인지 수준을 고려하면서도, 논증에 대한 보편적 개념에 반(反)하지 않고, 논증적 소통 행위와 과정·논증 행위를 지배하는 맥락을 고려한, 국어 교육적으로 보다 적절한 재개념화가 요구된다.

2) 논증에 대한 재개념화와 논증적 상호 교섭

논증이라 하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 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언어 사용 목적 측면에서 논증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적으로 입증하려는 유목적적인 언어활동이다. 반박의 여지가 있는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기에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대화해야 한다.⁵⁾

한편 형식적 측면에서 논증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논거로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논증을 잘하기 위

5) 논증 과정의 상호 작용은 논증자 개인의 내면에서도 일어난다. 개인은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 주장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반박을 떠올리며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찾는다.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가시적인 외면적인 소통이라면 자기점검은 비가시적인 내면적 소통 과정이다.

해서는 무엇보다도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적절한 논거를 찾아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논리적으로 펼쳐야 한다.

즉 논증이란 한 담론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어떤 주장에 대해 근거를 대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Woods, et al.(2000 : 2)도 논증이란 어떤 주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이유나 증거를 제시하는 일로, 둘 이상의 진영에 의해서 발언되는 언어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환이라고 보았다. 고정되어 있는 텍스트에 드러난 전제와 결론 간의 논리적 관계만을 따져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논증을 의사소통 행위 차원에서 접근할 때 논증적 의사소통을 분석하는 데 가장 적절한 관점은 상호 교섭적 관점이다. 논증은 상대방을 설득시킬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상호 교섭적 해석 모델과 맞닿아 있다. 논증적 소통에 임할 때는 견해가 다른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호 교섭적 관점에서 중시하는 의사소통 기제가 반영되어 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이미 동의하고 있는 전제에 대한 계속적 탐색을 바탕으로 아직 동의하지 않는 결론을 향해 가는 소통의 전개 방향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논증은 의사소통에 대한 상호 교섭적 해석 모델로, 논증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논증 참여자 사이의 상호 교섭 작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논증적 상호 교섭에서 논증 도식의 기능

논증적 상호 교섭 과정에서 논증 참여자들이 주고 받는 내용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논증 구조의 뼈대를 이루는 근거와 주장, 혹은 전제와 결론이 합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충분히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논증이 과연 합리적이며 수용할 만한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근거가 신뢰성·대표성·충분성 등을 갖추고, 그것으로부터 도출 가능한 주장이 논리적 오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논증적 소통에 관여하는 제반 요소가 고려되고, 논증의 상황 맥락에 적절한 양식으로 전달되면 그 논증 행위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면, 즉 논증 내용간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논증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전략이 존재한다면, 논증 행위에 요구되는 인지적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나아가 그 방법이나 전략을 자동화 가능할 정도로 숙달시키면 논증적 상호 교섭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Govier(1988)는 논증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논증의 유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다(김희정·박은진, 2008 : 49~60). 활용 범위가 넓고 전이 가능성이 높은 논증 유형을 학습하고 그것을 새로운 논증 담화나 논증 텍스트 상황에 적용시켜 보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Edward & Barbara(2010 : 154)도 근거 및 이유를 주장과 연결시키는 논리적 추론 유형을 아는 것은 각각의 추론 유형에 따른 논증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들을 제공할 수 있고, 타인의 논증은 물론이고 자신의 논증의 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논증에 대해 제기될 반론들을 예측하여 보다 비판적인 논증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Govier(1988), Edward & Barbara(2010)의 논의와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 가능한 것이 바로 ‘논증 도식(argumentation scheme)’을 활용하는 것이다. 논증 도식이란 논거로서 진술된 것과 주장으로서 진술된 것 간의 관계를 표상하는 관습적인 방식이다(Eemeren & Grootendorst, 1992 : 96). 전제와 결론 간의 관계 유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논증 유형(type of argumentation)과 동의어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유형’으로 그치지 않는다. 현대 논증 이론에서 일련의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는 논리적 추론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서 전제와 결론의 관계 유형을 ‘유형(type)’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도식(scheme)’이라고 표현한 의도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식(scheme)이란 외부의 환경에 적응하도록 환경을 조작하는 감각적·행동적·인지적 지식과 기술을 통틀어 이른다. 담긴 구체적인 정보는 새롭게 접하는 외부의 자극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도식은 어떤 대상에 대해 기존에 지니고 있는 지식과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정보를 여과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정보를 접했을 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도식의 일반적인 기능과 마찬가지로, 논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주장과 이유, 또는 전제와 결론 간의 관습적인 관계 유형도 논증 행위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지식과 기술,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증 도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증 도식은 일종의 인지 도식으로서, 논증을 구성하는 도구이자, 논증을 발견하는 도구이며, 논증을 평가하는 도구로 논증적 소통의 전략·책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논증자는 논증적 의사소통을 시도할 때 특정한 논증 도식을 사용하여 주장과 논거를 진술해 나간다.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 때 자신의 논증이 상대방으로부터 평가 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대방에게 익숙한 특정한 논증 도식을 선택해서 사용한다. 논증 도식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주장의 정당성을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논증 행위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주장에 적합한 관습적인 방식으로 논증 도식을 선택하고 사용한다.

한편 논평자⁶⁾는 논증을 시도한 자가 어떠한 논증 도식을 어떻게 사용

6) 논증을 제시하는 사람을 ‘논증자’라고 한다면, 설득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은 논증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수신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신자는 논증자의 의견을 묵묵히 수용하기만 하지는 않는다. 논증자가 제시한 논증의 전제와 추론 과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합당하면 결론을 받아들이되,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다면 논증자를 향해서 비판적 의문을 제기한다. 즉 상대방의 논증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증한다는 점에서 ‘수신자’보다는 ‘논평자’가 더 적절할 것이다.

했는지에 착안하여 논증의 설득성과 논증의 합리성을 평가할 수 있다. 자신의 주장을 어떠한 논증 도식에 담아냈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비판적 의문이 다르며 이에 따라 반박의 양상이 결정되므로,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논증 도식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상의 대화나 일반적인 토론의 경우 생략과 비약, 과장을 위한 수사적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 좋은 논증과 그렇지 못한 논증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논증 도식을 분석하면, 논증자가 논증을 이끌어 가기 위해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주장과 근거의 관계, 근거 간의 관계 등이 명료하게 드러나 논거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쉽게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논증 도식 유형이 논증적 상호 교섭의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0-말(3)】 여러 가지 토론의 유형을 알고, 쟁점을 찾아 토론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토론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논증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논증의 유형에 따른 반박의 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008 : 33

【화법(3)답화 유형-(라)토론-③】 상대의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평가하면서 듣는다.

……논증의 구조는 논증의 요소인 주장과 근거들이 이루는 형태적 관계이며, 논증의 유형은 근거의 성격에 따라 논증을 분류한 것이다. 논증의 구조나 논증의 유형을 고려하여 논증의 합리성을 평가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008 : 160

【10-말(3)】에서 각 유형에 따른 반박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논증의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접근할 때는 논증 유형에 따른 각각의 논리 전개 특징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증의 유형’이란 곧 논증 도식의 유형을 염두에 둔 것이며, 그것의 기능과 도구성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화법(3)답화 유형-(라)토론-③】에서 논증의 유형

을 고려하여 논증의 합리성을 평가한다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요컨대 논증 도식은 논증적 상호 교섭의 핵심을 이루는 주장과 근거의 연결을 표상하는 관습으로서, 논증 도식에 대한 인식과 활용은 논증을 생성하고 조직하며 발견하고 평가하는 데 기여하며 논증적 상호 교섭을 합리적이고 역동적으로 전개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논증 도식을 내면화·자동화하여 능숙하게 활용한다면 논증에 대한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논증 담화 및 논증 텍스트 운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논증 도식 유형 분류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국어 교과서의 논증 도식 유형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에 논증 도식이라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연역’, ‘귀납’을 ‘논증 방식’으로 간단히 소개하고, 소단원 학습 제재글에 어떠한 논증 방식이 사용되었는지 분석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 때 연역과 귀납의 ‘논증 방식’이란 주장과 근거의 관계 맺음 유형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논증 도식 개념을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연역’과 ‘귀납’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 내는 논증 방식을 귀납적 논증이라고 해. 일반적 원리를 제시한 뒤 구체적인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식을 연역적 논증이라고 해.

—노미숙 외(천재교육, 2010 : 133)

‘논증’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교과서들 중 대부분의 교과서⁷⁾가

논증의 방식으로 ‘연역’과 ‘귀납’을 제시하고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는 제한적 정의이다. 이는 일상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전적 의미로서, 중학생의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논리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연역과 귀납을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정의할 경우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에 포함되는 여러 다양한 하위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논증 유형들 간의 상·하위 개념 체계를 흐트러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귀납 논증에는 유추에 의한 논증과 인과에 의한 논증 등도 포함되는데 귀납적 일반화만이 귀납 논증의 전부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커지고, 귀납적 일반화만이 귀납 논증이라고 이해하면 유추에 의한 논증과 인과에 의한 논증을 연역 논증 및 귀납 논증과 동일한 층위로 오해하게 되는 등의 오개념이 형성된다.

한편 교과서에서 제시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차원의 논증 방식 제시는 논증의 텍스트나 논증의 담화를 운용하는 데 생산과 수용의 전략으로 기능할 수 없다. 즉 연역과 귀납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접근이라 논증적 소통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수준의 논의가 될 수 없다.

또한 연역과 귀납을 소개한 까닭은 논증 방식에 따라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요소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교과서 내용은 두 가지 논증 방식을 소개하는 차원으로 그치고 있거나, 소단원 제재글의 논증 방식이 연역인지, 귀납인지 확인하는 정도에 멈추고 있다. 논증의 방식을 설명한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정의 학습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 내용을 고려할 때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의 논증 유형도 ‘연역, 귀납, 유추’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⁸⁾ ‘논증의 유형에 따라

7) 김상욱 외(창비, 2010 : 172), 남미영 외(주)교학사, 2010 : 177), 노미숙 외(천재교육, 2010 : 133), 박경신 외(대교, 2010 : 118), 윤희원 외(주)금성출판사, 2010 : 138) 권영민 외(새롭 교육, 2010 : 144), 오세영 외(해냄에듀, 2010 : 71) 등이 논증 방식으로 연역과 귀납을 소개하고 있다.

반박의 전략을 학습해야' 한다고 했던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도 논증의 유형은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거시적이고 일반적인 논리 전개 방식으로서 '연역'과 '귀납'에서 벗어나, 논증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구체적인 구조와 관련하여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접근법으로서 논증 도식을 제시하고 논증 교육의 효율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현대의 논증 이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증 도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들을 교과서 내용으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2. 논증 이론의 논증 도식 유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논증 도식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데, Perelman & Olbrechts-Tyteca(1958), Eemeren & Grootendorst(1992), Kienpointner(1992), Breton(1996), 이광모 외(2006), Walton & Reed & Macagno(2010)⁹⁾ 등이 대표

8) 2007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2008 : 92)에서는 ‘【9-쓰(2)】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근거를 들어 논증하는 글을 쓴다.’라는 성취기준을 해설하면서 ‘……특히 연역, 귀납, 유추 등과 같이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논증하는 글을 쓰도록 한다.……’라고 하여, 전제와 결론의 관계 유형을 ‘연역, 귀납, 유추’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9) 지면의 한계 상 각각의 논증 도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한다. 다만 연구자들별 논증 도식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Perelman & Olbrechts-Tyteca(1958) : 유사 논리적 논거, 현실의 구조를 토대로 하는 논거, 현실의 구조를 확증하는 논거, 분리의 형식 / Eemeren & Grootendorst(1992) : 징후 도식, 유추 도식, 인과 도식 / Kienpointner(1992) : 포함 도식, 비교 도식, 대당 관계 도식, 인과 도식, 귀납적 예시 도식, 설명적 예시 도식, 유추 도식, 권위 도식 / Breton(1996) : 권위에 의한 논증, 공통 전제를 사용하는 논증, 프레임 재설정, 정의, 표현, 결합과 분리 / 이광모 외(2006) : 일반화에 의한 논증, 원인과 결과에 의한 논증, 유비에 의한 논증, 권위에 의한 논증, 표본에 의한 논증 / Walton & Reed & Macagno(2010)는 논증 도식 논의에 대한 역사를 두루 개관하며 논증 도식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집대성하여 총 60개의 도식(세부 유형까지 고려하면 101개)을 제시함.

Perelman & Olbrechts-Tyteca(1958)의 논증 도식 유형은 그 분류 수준이 세밀하고 정교하다. 하지만 논거 자체의 분류가 아무리 정교하고 상세하더라도 그것의 사용이 고려되

적이다.

국어 교육의 논증 교육 연구에서 가장 널리 원용되고 있는 것은 Kienpointner(1992)의 유형 분류이다. Kienpointner(1992)의 분류 방식은 형식 논리학의 분류가 일상어에 적용될 때 생기는 문제점, Eemeren & Grootendorst (1992)으로 대표되는 화용·대화론의 분류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문제점, Perelman & Olbrechts-Tyteca(1958)로 대표되는 수사학의 분류 방식이 비체계적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포괄성과 설명력을 갖춘 것이라(민병곤, 2004 : 64)고 평가된다. 여타의 논증 도식 유형은 분류 수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지만, 그의 유형은 상대적으로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어 논증 교육 연구 과정에서 학습자가 생산한 논증 텍스트에서 논증 도식을 분석할 때 널리 활용되어 왔다.¹⁰⁾

하지만 Kienpointner(1992)의 8가지 논증 도식 유형을 학습자의 논증 텍스트 분석의 기준으로 무비판적으로 원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Kienpointner의 분류는 추상적 차원의 일반화를 통해 도식의 유형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입시키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Walton, 1996 : 46). Kienpointner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학습자들이 생산한 논증 담화나 논증 텍스트의 논증 도식을 분류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부 도식의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¹⁾ 이러한

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일이다. Perelman의 분류 방식은 지나치게 중층적이어서 논증의 습득 과정에 있는 학습자들이 실제의 논증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Eemeren & Grootendorst(1992)의 유형 분류는 Perelman & Olbrechts-Tyteca(1958)의 유형 분류에 비해 간명하고 포괄적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간명하여 개개 논증 유형의 특성을 밝혀내기 어렵고, 구체적인 개별 논증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수용하는 단서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10) 민병곤(2004)에서 Kienpointner의 분류에 따라 학습자들이 작성한 텍스트의 논증 도식을 분석하는 연구 주제 및 연구 방법이 소개된 이후, 논증 교육과 관련된 여러 석사학위 논문에서 학습자들의 논증 텍스트를 분석할 때는 Kienpointner의 8가지 논증 도식 유형을 가장 모범적인 분석 기준으로 간주하고 활용하였다. 후속 연구들에서 민병곤(2004)와 함께 많이 인용하고 있는 진영란(2006)의 ‘인과 도식, 설명적 예시 도식, 귀납적 예시 도식, 유추 도식, 권위 도식, 비교 도식, 반대 도식, 포함 도식’ 역시 Kienpointner의 8가지 도식의 명칭을 일부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11) 민병곤(2004)에서는 학습자의 논증 텍스트에서 포함 도식이나, 설명적 예시 도식은 사

결과는 연구 대상 학습자의 능력 수준이 해당 도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발달하지 못한 것이라 해석된다. 과제로 제시된 논제의 성격이나 논제에 대해 학습자가 취하고 있었던 입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논증 도식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분류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못하고 개별 논증 도식마다 독립적인 고유성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¹²⁾ 학습자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개별 연구자가 임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였을 수도 있다. 나아가 Walton의 지적대로 애초에 구체적인 담화나 텍스트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도식이었다면 그 도식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도식의 활용을 학습자에게 요구하거나 논증 도식 활용과 관련된 가상의 발달 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듯 논증 도식을 구분하는 방식이 학자들마다 달라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논증 도식을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합의안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없었다. 또한 대표적인 논의라고 평가되는 것도 논증 도식 유형들 간의 관계가 모호하여 논증의 습득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이 이를 학습하고 내면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논증 도식 본연의 의의와 가치를 고려한,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유용한 논증 도식을 새롭게 추출할 필요가 있겠다.

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인애(2007)에서는 포함 도식, 반대 도식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권회경(2008) 역시 포함 도식, 반대 도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 12) 예를 들어 보장을 만드는 도식의 경우는 보장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그치느냐와 이끌어 낸 보장으로부터 새로운 결론까지 도출해 내느냐에 따라 귀납적 예시 도식과 설명적 예시 도식으로 나누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시의 방법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변별력이 크지 않다. 보장을 사용하는 도식은 포함·비교·대당관계·인과 도식 등으로 하위 유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어 과연 개개의 하위 유형이 다른 것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야기되기도 한다.

IV. 논증적 상호 교섭 전략으로서 논증 도식 유형의 재구성

논증 도식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논증 도식 유형을 새롭게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 논증 도식들마다 그 성격이 중첩되지 않도록 분류 기준이 간결 명확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또한 논증 담화 및 논증 텍스트 본연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고유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도식을 추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논증의 습득 과정에 있는 학습자들이 논증의 생산과 수용 전략으로 활용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과 학습 가능성을 갖춘 논증 도식을 선정해야 한다. 논증적 상호 교섭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해 주고, 다양한 논증적 소통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전이성을 갖춘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논증 도식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 도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증 도식을 분류하기 위한 최상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화용론적 측면의 논의들에서 벗어나, 논리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증의 유형에서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논리학은 엄격한 잣대를 바탕으로 논증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학에 기초하면 논증 도식 유형을 분류하는 데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대적 논증 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논증 도식의 역사적 전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topoi'*¹³⁾에 대한 고대와 중세의 논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topoi'*에 대한 논의에 착안하면 논증 메시지의 논리적 추론 관계뿐만 아니라 논증적 의사소통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두루 고려하는 분류 체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입체적으로 고

13)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피치의 골격을 구성하는 주요 아이디어들의 집합을 *topoi*라고 불렀다. *topoi*란 그리스어로서 '장소(place)'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이디어들의 모임을 '장소'라고 표현한 이유는 동일한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들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져서 동일한 기억 장소에 저장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모여 있는 기억 장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topoi*를 발견하는 과정이라 불렀다. 오늘날 *topoi*는 스피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아이디어들의 모임, 즉 사고의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려하여 논증 도식을 분류하되, 논증 담화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논증 도식을 열거할 것이 아니라 논증 담화 및 텍스트 전개에 널리 활용되어 전이 가능성이 높은, 논증 담화 및 텍스트 운용 전략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도식을 뽑아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논증 메시지의 논리 관계에 따른 논증 도식 분류

논리학에서의 논증의 유형은 크게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으로 나누어진다.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은 논증을 구성하는 전제와 결론의 지지 관계에 따라 구분된다. 연역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는 엄격성을 바탕으로 한 논증이며, 귀납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일 가능성이 크지만 거짓일 가능성도 있는 개연성과 통계를 바탕으로 한 논증이다. 연역 논증은 결론의 내용이 이미 전제 안에 포함되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나 자료들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귀납 논증은 결론의 내용이 전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나 자료로부터 지식의 영역을 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연역 논증은 크게 명제 논리의 논증과 술어 논리의 논증으로 나뉘며, 명제 논리의 논증에는 조건 논증, 선언 논증, 귀류 논증, 딜레마 논증 등이 있으며, 술어 논리의 논증에는 정언 논증, 관계 논증 등이 있다.¹⁴⁾ 귀

14) 연역 논증에 관한 이론은 매우 심층적이고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다. 하지만 그것에 관한 보다 전문적이고 치밀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넘어설 수밖에 없기에, 여기서는 다만 연구자들마다 공통적으로 논의하는 대표적인 유형, 일상에서 접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Salmon(1984)는 연역 논증의 대표적인 하위 유형으로 조건 논증, 귀류 논증, 딜레마 논증, 정언 논증, 관계 논증을 제시하였다. 박승익 외(2005)는 정언 논증, 가언 논증, 선언 논증 등, 한상기(2007)은 조건 논증, 선언 논증, 귀류논증, 딜레마논증, 정언 논증, 관계 논증을 제시하였다. 이명숙(2011)은 조건 논증, 선언 논증, 가언 논증, 귀류 논증, 딜레마 논증, 집합 논증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판단도 임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전통 논리학과 현대 형식 논리학 사이에서도 논리학을 보는 관점이나 논리적 개념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납 논증은 매거 논증, 통계 논증, 권위 논증, 유비 논증, 인과 논증 등으로 나누어진다.¹⁵⁾

상기에서 밝힌 연역과 귀납의 본질적 개념 특성과 하위 유형에 따르면, Kienpointner(1992)의 논증 도식도 연역과 귀납으로 크게 묶어 볼 수 있다. 포함 도식, 대당 관계 도식은 연역 논증의 범위에 속하고, 그 외 비교 도식, 인과 도식, 귀납적 예시 도식, 설명적 예시 도식, 유추 도식, 권위 도식은 모두 귀납 논증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Eemeren & Grootendorst(1992)의 징후 도식, 유추 도식, 인과 도식은 모두 귀납에 속한다. 이광모 외(2006)에서 제시한 일반화에 의한 논증, 원인과 결과에 의한 논증, 유비에 의한 논증, 권위에 의한 논증, 표본에 의한 논증도 모두 귀납 논증이다.¹⁶⁾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제와 결론 간의 관습적인 관계 유형으로서 논증 도식들은 대부분은 귀납 논증에 속한다는 것이다. 논증 도식에 대한 논의들에서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인과 도식, 권위 도식, 유추 도식, 예시 도식들도 모두 귀납 논증인데, 그만큼 과학이나 법률 분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일상적 논증에서 보편적으로 전개되는 논증 방식은 귀납의 범주에 속한다.

기실 일상의 논증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연역 논증은 잘 일어나지 않

이론적 논의를 배제하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한다.

- 15) Salmon(1984)는 귀납 논증의 대표적인 하위 유형으로 매거 논증, 통계 논증, 권위 논증, 사람에 반대하는 논증, 유비 논증, 인과 논증, 가설 검증의 논증을 제시하였다. 박승억 외(2005)는 사례 논증, 유비 논증, 인과 논증을, 한상기(2007)는 매거 논증, 통계 논증, 권위에 의거하는 논증, 유비 논증, 인과 논증을 제시하였다. 김희정 외(2008)는 유비 논증, 귀납적 일반화, 통계적 삼단논법, 최선의 설명에 의한 논증, 인과 논증을, 송하석(2010)은 귀납적 일반화, 통계적 삼단논법, 유비 논증, 가설 추리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숙(2011)은 매거 논증, 통계 논증, 권위에 의거하는 논증, 사람에 반대하는 논증, 유비 논증, 인과 논증을 제시하였다.
- 16) Breton(1996)은 설득적 의사소통의 원리로서 호기심, 공명 등을 바탕으로 논증 도식을 나누고 있어 논증 메시지 자체의 내적 논리 추론 관계에 따라 연역과 귀납으로 분류하기 어려우며, Walton et.(2010)의 경우는 연역 논증, 귀납 논증 이외에 대인 논증과 오류로 간주되어 왔던 것들까지 집대성하여 총 101개의 논증 도식을 제시하고 있어 이원화하기 어렵다.

는다.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도록 형식적 규칙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타당한 논증이나, 전제들이 모두 참이기까지 한 건전한 논증이 치밀한 준비 작업 없이 전개되는 일상적 소통 상황에서 구현되기는 어렵다. 또한 연역 논증은 이러한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결론을 의도적으로 정당화하려고 시도하지 않더라도 결론이 스스로 절대적이며 정확하게 정립된다. 이러한 논증은 수학적 논증이나 개념적 진리를 나타내는 논증 정도에 그친다.

일상적 소통 상황에서의 논증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 대해 자신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잠정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며 가장 그럴듯한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전제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 아닐 수 있으며, 완벽하게 참이라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고 여겨지는 전제를 사용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반박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절대성과 정확성을 추구했던 정통 논리학은 이러한 논증에 대해서 덜 정확하고 불투명하며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위성험이 높으며, 이를 소홀히 취급하고 오류로 간주하였다. 실제 경험에서 비롯되는 사태의 통상적인 패턴과 기대치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가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추론에 지나지 않으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람을 오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상적 소통 상황에서 논증의 방식을 선택하는 까닭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그러한 위험성이 논증적 상호 교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고, 보다 합리적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논증적 상호 교섭의 순환 원리가 된다. 즉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면 예전에는 합리적이라고 추정되었던 것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 반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논증적 상호 교섭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내기 위한 비판적 사고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상의 논증적 소통 상황, 상호 교섭 행위로서 논증을 다루는 국어 교육에서는 논리학이 핵심적으로 다루는 연역 논증이나 귀납 논증 이외에 일상적 소통 상황에서 출현하는 빈도가 높은 이러한 유

형의 논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요컨대 논증은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정도에 따라 연역과 귀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상의 논증적 소통 상황에서는 연역 논증보다 귀납 논증이 보다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논증적 상호 교섭 전략으로서 논증 도식을 추출할 때도 이상의 논리학의 학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되, 귀납 논증의 실용성, 보편성, 전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즉 권위 논증, 인과 논증, 유비 논증 등은 귀납 논증의 하위 유형에 속하지만, 그것이 연역 논증보다 일상적 소통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학습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연역 논증과 같은 층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또한 사태에 대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기대치를 바탕으로 그럴듯한 결론을 추정해 가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연역 논증의 대응 짝으로 사용해 왔던 귀납 논증은 비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귀납 논증 본래의 논리학적 개념을 추구하는 데 효과적인 일 것이다. 귀납 또는 귀납적이라는 용어의 일상적이고 사전적인 함의는 귀납 논증의 하위 유형으로 논의되는 것들까지 모두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상위 개념으로서 귀납 논증은 비연역 논증으로 처리하고,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확률적 통계에 기댄 귀납적 일반화나 귀납적 개별화 논증만을 귀납 논증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학습자들의 인식 체계에 부담을 줄이고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상 논리학의 논증 분류 방식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논증 메시지 내부의 논리 관계에 따라 논증 도식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전제와 결론의 관계 맺음 방식으로서 논증 도식은 그 관계 유형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뉜다. 다섯 가지란 전제와 결론 간의 연역적 함축성 관계에 기반한 도식, 전제와 결론 간의 규칙적 제일성 관계에 기반한 도식, 전제와 결론 간의 유사성 관계에 기반한 도식, 전제와 결론 간의 인과성 관계에 기반한 도식, 전제와 결론 사이의 단편적 상관성에 기반한 도식으로,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논증 메시지의 논리 관계에 따른 논증 도식

| 논리학적 분류 수준 | 논증적 상호 교섭 전략으로서 논증 도식의 분류 수준 | |
|---------------|------------------------------|-----------|
| | 전제와 결론의 관계 | 도식 유형 |
| 연역 | 연역적 함축성 | 연역적 논증 도식 |
| 비연역 | 규칙적 제일성 | 귀납적 논증 도식 |
| | 유사성 | 유비적 논증 도식 |
| | 인과성 | 인과적 논증 도식 |
| | 단편적 상관성 | 추정적 논증 도식 |

전제와 결론 간의 연역적 함축성 관계에 기반한 도식은 일반적인 연역 논증을 포괄하는 도식으로 연역 논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유사 논리 논증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연역 논증의 적절성과 강도는 타당성과 건전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때 ‘타당하다’라는 말은 결론의 내용이 전제 안에 들어 있다는 의미로 논증의 형식적인 구조를 평가하는 것이다. 반면 ‘건전하다’라는 말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전제들이 참일 경우를 일컫는다. 만약 형식이 타당하고, 전제도 참이라면 결론은 필연적으로 참일 수밖에 없다.

전제와 결론 간의 규칙적 제일성 관계에 기반한 도식은 귀납적 논증 도식으로 대표된다. ‘규칙적 제일성’이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는 특별한 변동 요인이 없는 한 기준에 유지되던 질서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본고의 귀납 논증은 귀납적 일반화, 귀납적 개별화, 통계적 귀납만으로 제한하며, 귀납 논증의 적절성과 강도는 구체적인 사례의 충분성·전형성·대표성, 반례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전제와 결론 간의 유사성 관계에 기반한 도식은 유비적 논증 도식이다. 유비 논증은 우리에게 친숙한 경우가 갖고 있는 특성들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낯선 경우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 낸다. 유비 논증의 적절성과 강도는 비교되는 대상들이 공유하고 있는 유사점의 충분성, 비교 특성의 대표성, 비교 특성들 간의 관련성, 비교되는 대상 사이의 상이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전제와 결론 간의 인과성 관계에 기반한 도식은 인과적 논증 논증이다. 인과 논증의 적절성과 강도는 추정된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일관성, 시

간 관계성, 충분성, 유의미성, 언급된 원인이 단독으로 특정 결과를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지 여부, 주장하는 원인과 결과 관계를 거스르는 반대 사례의 여부로 결정된다.

전제와 결론 사이의 단편적 상관성에 기반한 도식은 연역적 함축성·규칙적 제일성·유사성·인과성처럼 전제와 결론 간의 관계를 한마디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상관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일상의 논증적 소통 상황에서는 전제들 간의 특정한 유기적인 관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주장과 상관관계를 맺으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상적 논증의 주장은 다른 것과의 단순한 비교·대조, 징후들을 통해서 충분히 뒷받침되기도 한다. 그 상관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Perelman & Olbrechts-Tyteca(1958)처럼 하위 유형을 중층적으로 세분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분류 체계를 복잡하게 할 뿐이며 개별적인 하위 유형마다의 고유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우므로 ‘단편적 상관성’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충칭한다. 추정적 논증은 이미 알려지고 확인 가능한 기호나 상징들을 바탕으로 알려지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잠정적인 결론을 추정해 가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Eemeren & Grootendorst(1992)의 징후 도식에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징후 도식의 적절성과 강도는 기호와 사건의 상호 관계성, 밀접성, 기호나 상징의 항상성, 사건을 가리키는 기호의 충분성, 관계를 부정하거나 모순되는 기호나 상징의 존재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

2. 논증적 소통 상황의 구성 요소에 따른 논증 도식 분류

논증 도식에 대한 논의는 현대의 논증 이론에 와서야 집중적으로 조명된 것이라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Braet(2004)와 Walton & Reed & Macagno(2010)는 논증 도식은 현대에 와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시대 철학과 수사학, 중세 스콜라 철학과 논리학 등에서 다루어진 *topoi*에 대한 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고 보았다. 이에 그들은 Aristoteles의

topoi, Alexander의 *pisteis*, Cicero의 *loci*, 12세기 William of Sherwood의 *topoi* 분류, 14세기 Burleigh의 결론 규칙, *Port Royal topics* 등을 통시적으로 고찰¹⁷⁾하였는데, 과거 철학자들이 *topoi*, *loci* 등을 분류했던 여러 가지 기준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기준들 중 하나는 청자, 메시지, 상황을 고려하여 *topoi*를 분류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동정, 위협, 연민 등 감정적 요소에 대한 호소를 바탕으로 한 *topoi*들은 청자와 관련된 것이다. 언어적 유목화, 분할, 대립 등 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한 *topoi*들은 메시지 자체의 논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전문가나 여론을 바탕으로 한 *topoi*는 의사소통 행위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것이다. Walton & Reed & Macagno(2010)과 Rigotti(2006)는 이러한 분류 기준에 대해 Aristoteles의 연설의 구성 요소와 연결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논증적 의사소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서 논증자, 논평자, 논증 메시지, 상황 맥락을 기반으로 논증 도식을 유형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과물로서 논증 메시지 자체의 논리적 의미 추론 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논증적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제반 요소를 두루 고려하는 것이다. 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논증은 결론과 전제 간의 논리적 추론 관계만이 아니라 논증적 의사소통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절한 기준이라 하겠다.

논증적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구성 요소는 논증 메시지, 논증 참여자, 논증 맥락이 있다. 이 때 논증 참여자와 논증 메시지는 논증적 소통 행위를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로 담화 내적 논리가 강하게 작용한다. 반면 논증 맥락은 논증적 소통 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담화 내적 논리와외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즉 논리 전개의 기반의 논증 담화 소통 행위 +내재성과 -내재성(외재성)을 기준으로 이원 대립적으로 재조정하여 분류 체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한편 논증적 소통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두 요소는 다시 나누어진다. 논증 메시지는 메시지 자체의 치밀한 내적 추론 관계를 기반으로

17) 구체적인 내용은 Walton & Reed & Macagno(2010)의 275~305쪽을 참고하기 바람.

하고, 논증 참여자는 메시지 자체의 치밀한 내적 추론 관계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즉 논증 메시지 + 내재성과 -내재성(외재성)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요컨대 논증 도식은 논증적 상호 교섭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 중 어떠한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소통 행위 내부의 논리에 기반하면서도 메시지 내용의 내적 추론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도식, 소통 행위 내부의 논리에 기반하되 메시지 외부에 존재하는 참여자의 심리나 의도 등으로부터 출발하는 도식, 소통 행위 외부에 존재하는 상황 맥락으로부터 출발하는 도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메시지 내용의 내적 추론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도식은 <표 2>의 ‘논증 메시지의 논리 관계에 따른 논증 도식’과 같이 구체화된다.

소통 행위의 직접적 구성 요소이기는 하되 메시지 외부에 존재하는 참여자의 심리나 가정 등으로부터 출발하는 논증으로는 대인 논증(argumentum ad hominem)이 대표적이다. 대인 논증은 일반적으로 논증 참여자의 감정·성격·지위·처지 따위에 호소하는 논증이다. 대인 논증은 많은 경우 논증해야 할 핵심적인 사안과 관련이 없다며 오류로 간주되기도 한다. 하지만 논증 참여자를 향하는 논리 전개는 인식 공격적이고 비방적인 대인 논증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항상 그릇된 것만은 아니며, 핵심적 사안과 관련성을 맺을 수도 있다. 일상의 논증적 소통 상황에서는 논증하고자 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논증 참여자의 일관성 없는 신념을 반박하는 논증을 전개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잠정적 결론을 추구하는 논증 상황에서 논제 관련성과 입증 관련성을 확보한 가운데 논증 참여자의 심리에 호소하여 상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기제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함부로 오류라고 간주하고 논증 도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논증해야 할 핵심적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으며 추정의 가능성을 높여주어 주장을 정당화하고 설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식 중에서 관습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것, 논증적 상호 교섭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도식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책 논제에 대한 논증에서 정책 시행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나 부정적인 결과를 묘사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는 인과의 방식을 사용한 듯이 보이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정하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 부정적 기대감 및 두려움에 호소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좋고 나쁜 가치 판단에 호소하여 상대를 설득한다는 점에서 인과 논증과 차이가 있다. 결과에 대한 예측에서 비롯되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 논증의 적절성과 강도는 예측되는 결과와 사안의 관련성, 결과의 발생 가능성 및 개연성의 정도, 예측되는 결과의 심각성 정도 등에 의해 좌우된다.

소통 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 맥락으로부터 출발하는 도식은 Kienpointner(1992)와 Breton(1996)의 권위 도식이 대표적이다. 권위에는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여론이나 관습도 포함될 수 있다. 대다수가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명제나 전문가가 참이라고 한 명제는 일반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고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것이 된다. 이는 논증적 소통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메시지 내적 논리 관계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 그 행위를 지배하고 있는 외부 세계의 영향력에 기대어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요컨대 상기에서 논의한 기준에 따라, 학습자들이 논증 장르 운용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확보한 도식과 논증 장르에서 널리 활용되는 전형성을 갖추고 있어 다른 상황에도 충분히 전이 가능한 도식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논증적 소통 상황의 구성 요소에 따른 논증 도식

| 소통 행위 내재적 | | 소통 행위 외재적 |
|-----------|------------|-----------|
| 메시지 내재적 | 메시지 외재적 | |
| 연역에 의한 도식 | 기대감에 의한 도식 | 권위에 의한 도식 |
| 귀납에 의한 도식 | | |
| 유비에 의한 도식 | | |
| 인과에 의한 도식 | | |
| 추정에 의한 도식 | | |
| 메시지 기반 | 참여자 기반 | 맥락 기반 |

V. 결론

이 연구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논증 개념이 적절하지 못하며, 논증 도식에 대한 교육 내용도 그 본연의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어, 학습자들의 논증 활동에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수사학이나 화용론에서 전개되고 있는 논증 도식 유형에 대한 논의들은 그 분류 체계가 복잡하거나 모호하여 논증의 습득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으로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다. 즉 논증 도식 본연의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고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논증 도식을 선정하고 분류 체계를 선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007 개정 교육과정, 그에 따른 국어 교과서, 이론적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논증 도식을 구분하는 분류 기준을 체계적으로 새롭게 정비하고 논증적 상호 교섭 전략으로서 학습 가치가 높은 논증 도식을 선정하였다. 논증적 상호 교섭을 추동하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논증 도식 본연의 기능과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는, 전이 가능성이 높아 다양한 논증 담화 및 텍스트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의 인지 발달 수준에 적합하여 학습 가능하고 자동적 수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논증 도식을 새롭게 추출하였다.

본고의 논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선정한 도식이 실제의 실용적 논증 상황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학습자들이 각각의 논증 도식을 학습하고 운용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며 학습 가치가 있는지, 논증적 소통에서 실현되고는 있으나 본고에서 간과한 논증 도식은 없는지 등을 탐색해 보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후속 연구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이러한 후속 논의를 전개시키기 위해서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한 선행 연구로서의 성격을 띤다.

국어과 교육에서 논증의 개념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고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

의 가용 기간은 제한적이어서 본고의 논의 가치가 반감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개정되더라도 논증적 소통의 교육적 가치는 높이 평가되어야 하며, 새 교육과정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보다 논증 관련 교육 내용을 보다 진지하게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1. 6. 27. 투고되었으며, 2011. 7. 10. 심사가 시작되어 2011. 7. 29.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인애(2007), “논증 도식 지도를 통한 논술 교수·학습 방안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김희정·박은진(2008), 『비판적 사고를 위한 논리』, 서울: 아카넷.
- 민병권(2001), “논증 이론의 현황과 국어 교육의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12, 국어교육학회, 237~285.
- 민병권(2004), “논증 교육의 내용 연구: 6, 8, 10학년 학습자의 작문 및 토론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승억 외(2005), 『토론과 논증』, 서울: 형성출판사.
- 박준호(2003), 『논리와 논증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박준호(2006), “논증의 종류와 평가의 기준—비판적 사고와 형식 논리학의 의의—”, 『범한철학』, 42, 범한철학회, 273~296.
- 송하석(2010), 『리더를 위한 논리 훈련』, 서울: 사피엔스.
- 이광모·이황직·서정혁(2006), 『논증과 글쓰기』, 서울: 형설출판사.
- 이명숙(2011), 『논증의 정석』, 전주: (주)공공&상상.
- 이성만(2001), 『논증이론과 논증분석, 한국텍스트과학의 제 과제』, 서울: 역락.
- 이정일(2010), 『생활 속의 논리 논증과 논쟁』, 과주: 한국학술정보(주).
- 장인봉(2006), “오늘날 서구의 논증 연구”, 『수사학』, 4, 한국수사학회, 239~268.
- 진영란(2005), “6학년 논증 텍스트에 나타난 논증 도식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 최승기·최훈(2008), “논증 평가 기법 개발”, 『수사학』, 9, 한국수사학회, 173~198.
- 한상기(2007), 『비판적 사고와 논리』, 과주: 서광사.
- 황정아(2009), “논증 도식을 활용한 논술 교육 방안”, 한국외대 석사학위 논문.
- Breton, P. & Gauthier, G(2000), 장혜영 역(2006), *Historie des theories de l'argumentation*, Editions la decouverte, 『논증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Maneli, Mieczyslaw(1994), 손장권 역(2006), *Perelman's New Rhetoric as Philosophy and Methodology for the Next Century*, 『페럴만의 신수사학—새로운 세기의 철학과 방법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Toulmin, S. E.(2003), 고현범·임건태 역(2006), *The Use of Argument*, Cambridge, 『논변의 사용』,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Walton, D.(2006), 권기대 역(2008), *Fundamenatals of Critical Argumentation*, 『논리의 숲 논술의 꽃』, 서울: 베가북스.
- Wesley, C. Salmon(1984), 객강제(2010), *Logic*, 『논리학』, 서울: 박영사.

- Williams, J. & Gregory, C. G.(2007), 윤영삼 역(2008), *The Craft of argument*, 『논증의 탄생』, 서울 : 홍문관.
- Douglas W., Chris R. & Fabrizio M.(2010), *Argumentation Schemes*, New York : Cambridge Press.
- Edward, S. I. & Barbara, W.(2010), *Critical thinking and communication(sixth ed.)*, Needham Heights, MA : Allyn and Vacon.
- Eemern. F. et al.(1996), *Fundamentals of Argumentation Theory :A Handbook of Historical Backgrounds and Contemporary Development*,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Freeley A.J. & Steinberg, D.(2005), *Argumentation and debate :Critical thinking for reasoned decision making*(11th ed.) Belmont, CA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Govier, Trudy(1988), *Ways of Teaching Reasoning Directly*, The Frist British Conference on Informal Logic and Critical Thinking.
- Govier, Trudy(2001), *The Philosophy of argument*, Vale Press.
- Kienpointer, M(1992), *How to Classify Arguments*, in : Emeren et al.
- Perelman. C. & Olbrechts-Tyteca. L.(1969), *The New Rhetoric : A Tratise on Argumentation*, University of Norte Dama Press.
- Rigotti, Eddo(2006), Can classical topics be revives within the contemporary Thoery of argument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SSA Conference* on Argumentation Theory, Amsterdam, June.
- Walton, D. N.(1996), *Argumentation Schemes for Presumptive Reasoning*, Mahwah, NJ : LEA
- Walton, D. N., Reed, C. & Macagno, F.(2010), *Argumentation Scheme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od Nancy V.(2001), *Perspective on Argument*, Prentice Hall.
- Wood, J., Irvin, A. & Walton. D.(2000), *Argument :Critical Thinking, Logic and th Fallacies*, Toronto : Prentice Hall.

<초록>

논증적 상호 교섭 전략으로서 논증 도식 유형에 대한 연구
 —국어 교과서의 ‘논증’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서영진

본 연구는 논증 도식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개정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논증’ 관련 내용과 논증 도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나아가 논증 도식 분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논증적 상호 교섭 전략으로서 학습 가치가 높은 논증 도식을 선정하여, 논증 도식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논증 도식은 논증적 소통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크게 논증 메시지에 기반한 도식, 참여자에 기반한 도식, 맥락에 기반한 도식으로 나눌 수 있다. 메시지에 기반한 도식이란 논증 메시지 내부의 전제와 결론의 논리적 관계에 따라 연역·귀납·유비·인과·추정에 의한 도식으로 세분화된다. 참여자에 기반한 도식이란 논증의 참여자로서 논평자가 가질 수 있는 미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기대감에 호소하는 도식이다. 맥락에 기반한 도식은 논증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 근거한 것으로 권위 도식이 대표적이다.

【핵심어】 논증적 상호 교섭, 논증 도식, 분류 체계

<Abstract>

Categories of Argumentation Schemes as Strategy of Argumentative Communication

—based on a critical review of ‘argument’ education content
in the Korean text books—

Seo, Young-jin

This study, recognizing value and importance of argumentation schemes, critically contemplates contents related to ‘argument’ and ‘argumentation scheme’ of the 2007 revised Korean curriculum for the second year middle school Korean textbooks and related theoretical discussions. The final aim is to modify classification standard of argumentation schemes and select more valuable ones. Having selected argumentation schemes, a groundwork will be provided to materialize teaching-learning contents.

Argumentation schemes are generally divided by message, participant and context in argumentative communication situations.

Schemes based on message are subdivided into deduction, induction, analogy, cause and effect and presumption schemes in consideration of interior premise and logical relations in conclusion.

Participant schemes appeal to commentators in connection with positive or negative feeling of expectation on future consequence.

Context schemes are based on sociocultural environment context dictating argumentative situations and a typical example is authority scheme.

【Key words】 argumentative communication, argumentation scheme, system of classification